ICT 0514

Smart City

건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Smart City는 큰 시간과 자본이 투입되는 분야이다. 총체적인 새로운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거나 강력한 민간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주거하는 형태. (자기집 마당이 없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도시로 모인다.

우리나라는 서울로 모이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서울과 서울 근교에서 주거하고 있다.

성장동력으로 스마트시티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산업이 생긴다. 기본적으로 건설은 물론이고 에어컨, 세탁기 등 성장동력이 생긴다. 후진국, 개발도상국등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나라들은 스마트시티를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많다. (신 성장동력)

우리나라도 정부주도로 많이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향후 10년간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스마트시티 개념

선진국 – 민간 주도(삶의 질 향상),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목적

후진국(신흥국) – 공공주도(국가 경쟁력 강화), 급격한 도시화 문제 해결, 경기부양 목적

일반적으로 도시에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 정의

최근에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도시 플랫폼으로 활용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 거의 신도시. 그리고 신도시조차도 스마트시티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싱가폴- 학력에 따라서 결혼 상대와 아파트 주거 상황을 선택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독재국가라서 가능하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는 회사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

봉사활동, 인턴경험 굉장히 중요!

겨울방학때부터는 회사를 다니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보아야겠다. (지도교수님께 메일)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것은 조단위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국이 7000조의 예산을 가지고 스마트시티에 투자하고 있다.

ITU-T Study Group 20

Smart Factory

설계, 생산, 소비, 유통, 피드백 다 연결해서 사이클을 스마트화한다.

독일이 제조업 제 1위 국가

독일은 국가주도로 스마트팩토리산업을 향상시키고 있다. 해마다 Revision하고 광고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많이 찾아가서 세미나 듣고 배운다.

독일이 선도, 미국과 일본의 추격 양상으로 전개 중이다.

미국은 대기업 주도로 사물인터넷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과 수익흐름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은 항상 전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손쉬운 플랫폼을 만드는 데 능하다.

Flexibility에서는 미국이 독일보다 항상 앞선다.

독일은 제조 측면에 특화, 미국은 다양한 산업을 공략하는 중

독일은 독일기업이 지배하고 있고 미국은 다국적 기업들이 많다.

IT회사는 데이터가 모인다. (data security)를 걱정하기 때문.

Smart Farm

농업은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면 극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 중 하나.

농사